취임 1주년 양오봉 전북대 총장

"변화·혁신으로 플래그십대학 실천"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2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학 운영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양 총장이 직접 프레젠터로 나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플래그십대학'을 주제로 지역 상생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전북대의 비전과 지난 성과, 그리고 플래그십대학 실현을 위한 혁신안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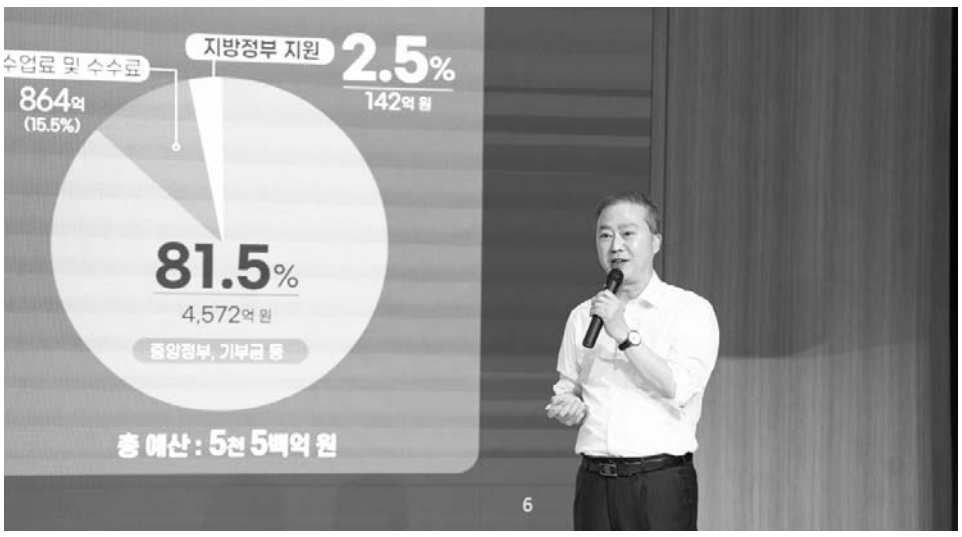
먼저 양 총장은 스탠퍼드대학 등 미국 주요대학의 최근 10년간 창업가 배출 현황과 국내 대학 사례 등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 8,000여명의 구성원과 2만1,000여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이 전북특별자치도 5,500여명, 전주시 2,300여명,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4,040여명 등 전북지역의 주요 지자체 및 기업체들보다 월등한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 분석 기준과 한국일보의 대학생 생활비 리포트를 근거로 전북대 구성원들의 연간 소비액을 분석, 전북대는 대학병원 포함 교직원 3,196억원, 재학생 247억원 등 연간 총 3,443억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북대가 분석한 2023년 연구비 기관별 기여도를 보면 지난 한 해 모두 2,186억원의 외부 연구비를 수주했다. 전북특별자치도 8억8,000만원, 전주시 7억7,000만원, 기타 지자체 2억6,000만원 등의 대응자금도 뒤따랐다.

특히 외부 연구비 수주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는 청년인구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등 직원과 연구원, 재학생 포함 모두 3,909.7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냈다.

지역 청년의 경우 대학 진학 단계와 구직 단계에서 각각 인구 유출이 일어나는데, 전북대가 연구 분야 종사자 고용으로 청년 인구의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장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2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학 운영의 계획을 발표했다.

6000억 국비 확보 · 대학 평가 비수도권 1위 '금자탑'
세계 100위권 진입 달성 목표로 혁신… 연구성과 창출
지역특화분야 등 적극 육성 국가 거점국립대 책무도

이어 총 예산 3조6,000억원의 미국 UC 버클리의 경우 주 정부 지원이 전체 예산의 14%인 5,040억원인 데 비해 총 예산 5,500억원의 전북대는 지방정부 지원이 전체의 2.5%인 142억 원에 불과함을 제시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양 총장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플래그십대학을 지향하는 전북대의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비전을 제시했다.

양 총장은 "지역혁신을 위한 2,145억 원 규모의 RIS 사업과 2,000억 원이 투입되는 글로컬대학30 사업, 340억 원 규모의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164억 원 규모의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선정 등 모두 6,256억 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며 "지자체와 20건, 산업체와 58건, 연구기관 및 대학과 21건,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대학 및 주요 기관들과 42건 등 모두 141건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며 플래그십대학 도약의 탄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을 위해 지난해 외협력부총장을 대외·취업 부총장으로 개편하고, 빅데이터 기반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지원처와 AI교육혁신 전략수립을 위해 교육혁신처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또한 "복수(부)전공 신청 성적기준을 폐지하고,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등 학생중심의 학사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전공 선택권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전북대는 지난해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 거점국립대 1위, 비수도권대학 1위, 세계대학 영향력평가 전국 4위 등 외부 평가에서도 역대 손꼽을만한 금자탑을 쌓았다.

이와 함께 천원의 아침밥과 3·3데이, 간식나눔 행사,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등 학생 복지 증진과 학생들과의 밀착형 소통에서도 5년 연속 한국표준협회의 서비스 품질지수 평가 1위를 견인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 총장은 모든 지역대학의 숙원이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당당히 전북대가 선정된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지역을 미래로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106개 모집단위를 내년 43개, 2028학년도에 24개로 광역화하고, 현재 1,979명인 외국인 유학생도 2028년까지 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산·학 협력 혁신을 위해 새만금과 전주·완주, 익산·정읍을 3개축으로 하는 '전북 대학-산업 도시 트라이앵글(JUIC Triangle)'을 구축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첨단 산업분야를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폐교된 서남대 캠퍼스 부지를 업사이클링 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북대 글로컬캠퍼스로 활용하고,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학당 등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양 총장은 10년 이내 국내에서 10위 이내 진입과 세계 100위권 진입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료과학과 농/임학, 화학공학, 기계/항공/제조공학, 환경과학 등 선도형 5개 분야와 물리/천문학, 생명과학, 전기/전자공학, 화학, 의학 등 도약형 5개 분야 등 모두 10개 학문분야를 선정해 QS 세계대학 학문분야별 평가 100위권 진입을 위한 글로벌 연구성과 창출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 지역 특화분야와 기초보호 학문 분야의 육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학생중심대학의 원년으로 선포한 올해 학생 교육의 혁신을 위해 2025년까지 105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년 54.7%에서 2023년 62.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취업률 역시 66%를 달성해 거점국립대 중 취업률 1위에 오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정 확충과 글로벌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교 77주년을 맞는 올해 연 77억 원의 발전기금 모금에 노력하고,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주최로 열리는 세계한국경제인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함께 전북대를 찾는 세계 경제인들에게 건강검진, 피부미용, 치과진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전북대의 우수한 의료역량을 세계에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교육혁신과 지역·산학협력 혁신, 글로벌 혁신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 지자체가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며 "대학의 선한 영향력이 전북지역의 모든 가정에 미칠 수 있도록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의과대학 학생수 늘려야"

양오봉 총장 "대학병원 전공의 피해 예방 최선 청렴도 향상에도 노력"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은 28일 뉴실크로드센터 7층 동행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142명인 의과대학 학생수를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4호관 증축으로 의과대학 학생수 증원에 준비된 대학이라며, 교수 충원에 대해서도 이미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대병원 전공의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거점국립대학교 청렴도 최저등급인 4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며, 올해 3등급을 목표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4등급을 받은 이유로는 먼저, 부정부패로 인한 소송건으로 보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컨설팅을 통한 시스템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한 점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실 인원 확충을 통해 상시·특정감사를 정례화하고, 인권위원회의 인원도 대폭 보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2등급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는 28일 2023학년도 우수 강의 교원 및 우수 연구자 시상식을 가졌다.

"교육·연구·산학협력 분야 선도 노력에 감사"

전주비전대, 2023학년도 우수 강의 교원 · 우수연구자 시상식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28일 2023학년도 우수 강의 교원 및 우수 연구자에 대한 시상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우수 강의 교원에는 컴퓨터정보과 장진수 교수, 유아교육과 이영주·양시내 교수, 이세헌 강사, 방송영상디자인과 김지애 교수, 방사선과 구본열 교수 등 6명이다.

이어 우수연구자 선정·지원사업은 연구과제, 지식재산, 학술활동 3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연구 역량강화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연구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는 총 4명의 연구자를 우수연구자로 선정했다.

연구과제 부문에는 전기공학과 이주연 교수, 지식재산 부문에는 지적토목학과 이근상 교수, 학술활동 부문에는 물리치료학과 양승훈 교수, 기계과 최승훈 교수가 선정됐다.

우병훈 총장은 "우수 강의 교원 및 우수연구자 시상은 교수님들에게 있어 자긍심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가장 뜻깊은 상"이라며 "우리 대학이 교육·연구·산학협력 분야의 선도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구성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우리 대학만의 특별하고 우수한 강의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라며 "지금처럼 많은 교수님들이 교육·산학협력·연구활동에 더욱 선도적 역할을 해 준다면 우리 대학이 전국적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개념 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 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도내 17개 초등학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개념 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념 기반 탐구수업이란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탐구 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해 삶에 전이 가능한 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교육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 기반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자기 주도성과 고등 사고력 등 미래역량을 기르는 게 목적이다.

이에 따르면 개념 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는 '생각하는 학생, 탐구하는 교실'을 목표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개념 기반 탐구수업을 집중적으로 연구-실천하는 학교로, 올해 17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규모에 따른 운영비 교부, 각종 연수 및 컨설팅 우선 지원, 선도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컨설팅 등 교류·협력 확대 등의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수업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념 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 연구학교와 더불어 초등교육 현장의 수업을 혁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제2회 에듀테크 콘서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일 2층 강당에서 '지혜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제2회 에듀테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에는 도내 학교 교직원·교육전문직원·연구자 등 200여 명이 참석, 기조연설, 에듀테크 교육 종단연구 최종보고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에듀테크가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특히 '2023 에듀테크 교육 종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교육용 스마트 기기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과 디지털 기기가 학습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에듀테크를 통한 교육 혁신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콘서트를 통해 얻은 통찰과 아이디어는 전북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 혁신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것"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학부모 간담회 개최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지난 27일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 성장을 위해 학부모와 학과 교수진이 소통하는 특별한 행사로, 개별 학과 차원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여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 문화관광대학 지역혁신관 309호실에서 열린 2024학년도 호텔경영학과 학부모 간담회는 신입생 학부모, 호텔경영학과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호텔경영학과 교수들은 이 자리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과 소개 및 비전 설명과 함께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부탁 말씀을 전하고, 학과와 학생 진로에 관한 학부모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전주대 호텔경영학과의 학생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전주비전대학교 취창업처(처장 박심훈)는 지난 27~28일 이틀간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전주기업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참여학과의 전공특성을 반영한 실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참여학생의 취업실무 역량 강화 및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에 주요 목적을 뒀다.

이 행사에 전주비전대학교 자동차과(학과장 김현식), 컴퓨터정보과(학과장 권숙연) 교수진과 16명의 재학생,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스마트전기과 이정빈 교수, LS엠트론 김수종 직장, 대한민국명장회 이상헌 명장이 참가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직업계고 홍보, 담당교사가 직접

전북자치도교육청, 특성화 · 직업계고 홍보지원단 발대식

앞으로 전북 직업계고 홍보는 담당교사가 직접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일 5층 접견실과 창조나래 5회의실에서 특성화고 및 직업계고 홍보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교사로 구성된 홍보지원단은 직업계고 인식개선 및 전북직업교육정책을 확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 총 26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앞으로 홍보지원단은 △직업교육정책 안내 및 진로가이드 북 등 홍보 자료 제작 △중학교로 찾아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 운영 △대면 및 온라인을 통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로 상담 △각종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통해 전북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홍보지원단 여러분이 대상에 맞는 최적의 홍보활동을 통해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북직업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